



문서번호 : 정대협 2010 - 22호

발신일시 : 2010. 02.. 16.

수 신 : 제 시민·사회단체 귀하

참 조 : 대외협력담당자님

제 목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입법해결을 촉구하는 50만 명 서명운동 협력 요청의 건**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세계 2차 대전 중 일어난 끔찍한 여성폭력문제인 일본군성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19년 간 정대협은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 각지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동참하고 있고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정부로부터의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생존자들은 하루하루 운명을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회는 국내외적 여론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더 늦기 전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때마침 일본에서는 반세기만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한국과 일본 양국의 시민들이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고, 내년 이른바 '국치 100년'을 기점으로 올바른 과거청산과 평화로운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적 압력활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여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앞당기고 이를 통해 올바른 과거사 청산과 한·일간 평화로운 관계 정립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일본 국민들이 요구한다.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와 배상을 위한 입법을!"이라는 구호 아래 일본 인구의 1%에 해당하는 12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우리 국민의 약 1%에 해당하는 5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국제연대서명운동도 진행하여 일본정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정대협은 지난 1월 13일, 제900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를 통해 50만 명 서명캠페인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귀 단체에서도 서명운동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연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의 참여 요청 내용 및 서명양식을 참고하셔서 적극적인 협력을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 음 *

<서명 참여 요청 내용>

오프라인 서명 :

1. 각 단체 활동가들의 서명
 2. 각 단체 지부 및 회원들에게 서명 동참 제안 및 독려 / 행사시 서명 받기
 - 첨부하는 서명 양식을 배포하여 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해주세요
(서명 후 각지에서 직접 전송해주셔도 되고, 취합 후 보내주셔도 됩니다)
 - 요청하실 경우, 단체 사무실이나 행사시에 게재할 수 있는 포스터 양식을 발송해 드립니다.
- *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릴 때는 직접 받아주시거나 정대협으로 연락주시면 달려 가겠습니다.

온라인 서명 :

2. 온라인 서명을 위해 웹자보 및 배너를 각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
 - 배너는 각 단체 홈페이지에 알맞은 크기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서명기간은 일차적으로 3월 말까지입니다.

* 붙임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입법해결을 촉구하는 50만 명 서명 캠페인 제안 설명 및 서명 용지, 홍보 이미지

* 문의 : 안선미 팀장(전화. 02-365-4016 팩스. 02-365-4017) 끝.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윤미향(상임) 한국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입법해결을 촉구하는 50만 명 서명 운동



일본 하토야마 연립정권은 입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진상규명과 해결을 요구하며 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19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UN과 ILO 등의 국제기구는 일본군'위안부' 제도를 반인도적 범죄로,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일본정부의 책임 이행을 수차례 권고했고, 2007년 미국을 시작으로 각국 의회에서도 결의안을 통해 일본정부의 조속한 문제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 일본 시의회에서는 일본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지적하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가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가 연이어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대부분 80세가 넘는 피해자들은 그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상처와 아픔을 안고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9년, 54년 만에 정권이 바뀌는 획기적인 정치적 변화를 이뤘습니다. 새롭게 일본정권을 책임지게 된 일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연립내각은 지난 자민당 정권에 비해 진일보적으로 과거 역사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한일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하토야마 총리는 "올바르게 역사를 직시 '하고, 보다 가까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전쟁범죄이자 앞으로도 재발의 위험을 가진 중대한 여성인권유린사태로 인식하고, 고령의 피해자들을 고려하여 일본 국내 입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루빨리 행동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정부도 그간의 소극적 한일외교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명확한 외교로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일본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2010년은 한반도가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강제 병합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10년에는 진정으로 한·일간 올바른 관계정립의 기초를 마련하는 원년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국민의 약 1%에 해당하는 50만 명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힘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일본과 한국 양국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 **일본정부와 일본국회는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해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나아가 재발방지 등을 위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 **한국정부와 한국국회는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기구 구성 등 한·일 간 외교적 해결을 위한 조치를 하루속히 시행하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온라인 서명 : 정대협 홈페이지(http://womenandwar.net/japan_lawsign.php),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110-460)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95-15 3층 / Tel. 02-365-4016 E-mail. war_women.naver.com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입법해결을 촉구하는 50만 명 서명 캠페인



**일본 하토야마 연립정권은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입법을 통해 조속히 해결하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일본과 한국 양국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 일본정부와 일본국회는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해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나아가 재발방지 등을 위한 입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 한국정부와 한국국회는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기구 구성 등 한·일간 외교적 해결을 위한 조치를 하루속히 시행하라!!

번호	성명	주소	이메일·연락처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www.womenandwar.net

온라인 서명 : 정대협 홈페이지(http://womenandwar.net/japan_lawsign.php),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서명 보내주실 곳 : (110-460)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95-15 3층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Tel. 02-365-4016 / Fax. 02-365-4017 / E-mail. war_women@naver.com